

기획시리즈-성인 열전 8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명 김대건 안드레아
(金大建 Andrew)
축일 7월 5일
성인구분 성인
신분 신부, 순교자
활동지역 한국
활동연도 1821-1846년
같은이름 김 안드레아, 김안드레아,
안드레아스, 앙드레, 앤드류,
앤드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일에 교황님께서 대한민국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

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177년 전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께서 순교하신 날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전의 외부 벽간에 설치된 그분의 성상을 축성하는 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위대한 성인이 보여주신 삶과 신앙의 증언을 두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아름다운 증언을 보여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증언을 두고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상의 설치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라자로 추기경님 - 훌륭한 분이십니다! -, 주교회의 의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 그리고 한국의 형제 주교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로 오신 많은 분들과 신부님들, 봉헌 생활을 하시는 남녀 수도자들, 평신도 형제 자매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인사드립니다! 성상을 조각해주신 한진섭 요셉님과 그의 아내 고희희 마리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저는 제 6회 아시아 청년의 날에 참가한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의 나라를 방문하는 기쁨을 누리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김 안드레아 성인께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솔피성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저는 침묵 속에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젊은이들을 기도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성인의 치열했던 삶을 생각하니 "말할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 최초의 사제이자 사제 서품을 받으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김 안드레아 성인이 소중한 씨앗이 된 여러분들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한국 교회, 즉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성소를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 여러분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생기를 얻어, 자신을 선물로 내어 주는 젊은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교라는 성인의 예언을 통해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품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며, 남김없이 사랑의 길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열려 있지 않으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김 안드레아 성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전파에 대단한 열성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지니셨던 그분은 여러 위험 앞에서도 물러섬 없이 또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시는 데에 헌신하셨습니다. 성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도 순교하셨고, 성인의 어머니는 결인처럼 사셔야 했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 안드레아 신부님을 바라보며, 사도적 열정을 키우라는 내면의 호소를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그분을 바라보며, 복음의 씨앗을 기쁘게 퍼트리도록 - 평화 안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바쳐진 삶을 통하여 - 자신에게서 탈피하는 교회의 표지가 되라는 내면의 호소를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사제 성소의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은 내쫓아 주십시오.” (역자 주: 가까운 관계에서 사용하는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 신부님들을 선교에 파견해 주십시오. 사람들보다 신부님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신부님들이 한국 밖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선교사들을 아르헨티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여러분의 선교사들은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파견하십시오. 꼭 필요한 분들은 남아 계시고, 그 외의 다른 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사도직으로부터 일어나 순교자들의 피로 기름지게 된 한국 교회는 그 뿌리에서 신앙의 증인들의 한없는 복음적 열성과 평신도 교우들의 역할과 소명을 소중히 대하는 인식을 흡수하며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폐쇄적인 자세를 버리고, 사제, 남녀 수도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이 함께 복음 선포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목적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복음의 희망을 선사하고자 하는 의향은 마음에 열정을 샘솟게 하고,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은 평가하지 않고, 일치시킵니다. 복음은 온유함과 봉사의 정신 안에서, 자기의 문화와 역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녹아들게 합니다. 즉, 복음은 절대로 적대적인 대립을 초래하지 않고, 언제나 친교를 이룹니다. 친교를 이루는 것, 이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성소를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김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실 때, 그분은 아편전쟁의 참상을 목격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한 분쟁의 상황에서도, 모든 이들을 만나고 또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자 하셨던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시며 많은 이들을 위한 평화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한반도와 온 세상을 위한 예언입니다.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또 우리도 여정의 길을 걷는 이들의 동반자, 화해의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이러한 모습은 미래가 무기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 건설되지 않고, 친밀한 온유함에 의해 건설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직한 증거입니다. 저도 언제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꿈을 우리 함께 김 안드레아 성인에게 맡겨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을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개최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 전파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참으로 젊은이들을 한국 천주교회에 맡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닌 신앙의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훌륭한 사목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효율성과 소비주의라는 가짜 신화의 유혹을 당하고 있으며, 쾌락주의의 환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마음이 진실로 찾는 것은 이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넓은 지평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잘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젊은이들이 내적으로 자유로워져서 진리와 형제애의 기쁨 가득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남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김 안드레아 신부님과 한국의 성인 순교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길 기원하며, 여러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전구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 진심어린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 교황청 홈페이지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ko/speeches/2023/september/documents/20230916-pellegrini-corea.html>

한가위
미사

2023년
09월 24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요엘 예언서 2,22-24.26-27
화답송 시편 67(66),2와 47,5과 6.7-8(◎ 7)

23. 9. 29. 한가위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 2독서 요한 묵시록 14,13-16
복음 환호송 시편 126(125),6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음 루카 12,15-21
성가번호 입당 57 봉헌 214, 510 성체 174, 159 파견 416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추성태(바오로) - 가족
김진철(요한) - 가족, 김삼식(베드로), 이윤석(리처드)
김경희(수산나) - 가족
김명자(헬레나) - 가족
심정일 - 박 안나
이동현(요셉) - 가족
최복자(레지나) - 가족
김상기(요셉) - 가족
정임분(마리안나) - 김동근(사도요한)
송태선 - 송진영(마리스텔라)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한지혜(크리스티나) - 오 세실리아
정 마이클 - 한상철(빈첸시오)
김성민 가정 - 가족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65명) \$1,197
교부금 (다음 주보에 공지)
이숙희(7-12) 이호용(9)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율리안나 방진숙(데레사)
정수지(아네스) 이금주(베드로)
송희수(글라라)



2차 헌금

10월 1일: 유틸리티

친교 봉사 일정

10/15사우스브런스윅 11/19썸머셋 12/17 에디슨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

오늘 9월 24일(주일)은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는 친교실에서 추석 식사 및 송편 나눔이 있으니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비자 교리 오리엔테이션과 첫 교리 모임

일시: 9월 24일 (주일) 미사 후 1시 30분
장소: 친교실 소회의실
문의: 교육분과장 허정(아나스타시아)

한국 예수회 김동일 안드레아 신부님 zoom 영성강의

주제: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 의식생활과 복음묵상
일시: 9월 26일(화) 저녁 8시
Meeting ID : 7323561037
Passcode : 1111

통합 사목회의

일시 및 장소:10월 27일(수) 저녁 7시 성당

꾸리아 월례 회의

일시 및 장소:10월 8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기획분과회의

일시 및 장소:10월 15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주일학교 (K-8th Grade) 및 유스 (9th-12th Grade)모집

2023-2024 주일학교가 9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등록: OLM성당 홈페이지 링크 이용
등록비: \$70/학생, \$130 (2명), \$180 (3명) 사무실로 납부
체크는 Payable to OLM 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Parish Picnic (본당의 날 행사)

일시 : 10월 1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장소 : 성당 뒷편 주차장
내용 : 오전 10시 한/미 공동체 합동 미사
오전 11시 음식 나눔 및 친교
오후 12시 30분 반려동물 축복식 및 아이들 놀이 행사
본당의 날 행사를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아 야외행사

일시: 10월 3일(화) 12시
장소: 성 요셉 성지 (St. Joseph Shrine), Stirling, NJ
대상: 레지오 활동단원 및 협조단원
준비물: 매일미사책, 목주, 핏세라 (점심 제공)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바닥 청소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제1독서: 요엘 예언서2,22-24.26-28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이,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 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 준다.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확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요한 묵시록14,13-16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12,15-21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곳간들을 헐어 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SCAN ME: 가스펠 듣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항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